

■전남대 국제자원활동팀, 레소토 디피링 지역서 두번째 봉사

아프리카 오지의 땅에 교육복지 심었다

중학교 기숙사 건축

우수 학생 입주시켜

오지의 땅 아프리카 레소토(Lesotho)에서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또 한번의 기적을 이루어 냈다. 지난 여름에 이어 이번 겨울 또다시 레소토 땅을 밟은 단기국제자원활동팀(팀장 박보라·경영학부 3년)이 한 달간 디피링 말레제마(Liphiring Maletsema) 지역에 머물며 중학교 기숙사 건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

대학생 11명과 대학직원 2명으로 구성된 자원활동팀은 전기도 없고 물도 넉넉지 않은 척박한 땅에서 현지인들과 힘을 모아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했다.

디피링 지역은 레소토에서 두 번째로 학생들의 대입성적이 좋은 곳이지만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우수 학생 대부분이 인근 도시로 유학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수 인재들이 외부로 빠져나간다면 경제적 부담이 크고 지역이 계속 침체를 겪고 있다”는 게 현지인들이 털어놓는 고충이었다.

지난 여름 기온과 첫 인연을 맺은 전남대가 다시 나섰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브릿지사업단과 함께 마을에 기숙사를 세워 우수학생 유치는 물론 지역 내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청소년들을 입주시켜 교육 복지를 실현키로 한 것.



전남대 국제자원활동팀이 지난 1월 아프리카 레소토 디피링 말레제마 마을에서 중학교 기숙사 건물 담장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도움을 주는 봉사자가 아니기에 가능했다.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했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는 게 박보라 팀장의 이야기.

현지인들과 마음을 열고 눈높이를 맞추며 소통하기 위해 현지인들과 똑같이 쉬고 똑같은 방식으로 생활하며 이방인의 낯선 이미지를 깨닫기 지우기 위해 노력했다. 핸드폰을 꺼놓고, 햇빛을 가리기 위한 모자와 자외선 차단제 또한 과감히 버렸다. 도심으로 이동할 때는 현지인의 차를 대여해 이동하고 필요한 것 대부분은 마을 내 가게에서 구입했다. 언어 또한 상대방에게 한국어 가르치기보다 레소토 언어를 배

워 먼저 인사하고 대화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마을 사람들이 자원활동팀을 먼저 찾아오기 시작했다. 기숙사 건축 일을 거둬고 교실 내부 페인트칠, 유치원 계산 및 화장실 만들기, 마을 도로정비공사, 나무 심기 등 자원활동팀이 움직이는 곳곳에 현지인들이 함께 힘을 모았다. 전문가 수준은 아니었지만 현지인들과 정성 들여 완공한 기숙사는 레소토 전통가옥인 모호로(Mokhor) 양식의 아늑한 공간으로 지역의 새로운 자랑거리가 됐다. 또한 현지 중학교 학생 및 교사와 함께 진행한 과일나무 1,100그루 심기 프로젝트는 마을의 새로운 자부심이자 희망이 됐다.

전남대의 레소토 두 번째 방문은 보다 큰 희망과 신뢰를 만들었다. 생활이 어렵고 낙후된 지역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현지인 스스로 지역문제를 찾아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전남대와 신뢰가 더욱 돈독히 쌓이면서 어린 아이들 마음 속에 “학교를 졸업하면 한국으로 대학진학을 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한편 전남대는 올 여름 3기 활동팀 파견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레소토의 지역문제를 공유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지식봉사도 우리가

전남대, 저소득층·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로 나서

전남대는 국제봉사활동 외에도 대학생들의 전문적인 학문지식을 나누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국내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대는 미래국제재단(이사장 김선동)과 함께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새싹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면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봉사정신이 남다른 재학생들을 선발해 빈곤층·저소득층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맡도록 하고, 이에 따른 활동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 미래국제재단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성적 우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생들은 다시 어려운 형편의 학생을 돕는 ‘선순환 기부활동’은 어린 학생들이 가난의 한계를 뛰어넘어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전남대는 또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해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사회적 약자 및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에게 비용 부담없는 학습지도·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은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다문화가정 학생수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학교생활 부적응, 학습진도 따라잡기 등에 따른 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멘토링 사업까지 펼치고 있다.

전남대 학생 100여명은 광주시 교육청에서 추천한 다문화가정 학생과 1대1 멘토·멘티 관계를 맺고 학기 중 뿐만 아니라 방학까지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학습지원·체험활동·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은 효과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비 및 교재비 지원·활동수기 공모·방학 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학교생활 동영상·미래기원 메시지·축하공연...

동신중 학생들이 만든 졸업식 ‘눈길’

광주의 한 중학교가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졸업식을 치러 눈길을 모으고 있다.

6일 광주 동신중학교(교장 류재홍)에 따르면 지난 3일 학교 내 정관관에서 제43회 졸업식을 진행했다.

이번 졸업식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졸업생을 포함한 1, 2학년 학생들은 ‘졸업식 준비팀’을 꾸려 ‘함께하는 동신중학교 졸업식’을 주제로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했다.

방송부 학생들은 이날 졸업식장에서 선보인 졸업축하 동영상과 선·후배들의 학교 생활모습을 담은 영상을 제작했다. 1, 2학년 후배들은 선배들의 미래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적었다. 3학년 학생들도 부모님 등에게 보내는 졸업식 초대장을 직접 만들었다.

이날 축하공연에는 졸업생 강태호 군과 학교 밴드부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다.



광주 동신중학교 학생들이 지난 3일 학교 내 정관관에서 열린 제43회 졸업식에서 3학년 선배들과 학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축하 댄스를 선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학생들은 행사 당일 학교를 방문하는 학부모 등에게 학교 생활을 알리기 위해 학급 문집 등을 학교 중앙 현관에 전시하는 등 여는 졸업식과 다른 모습을 선보였다.

동신중학교 관계자는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동신대, 中에 세종학당 설립

한국문화·한글 우수성 알려

동신대학교(총장 김필식)가 한국어세계화재단으로부터 세종학당 설립 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동신대는 오는 3월 자매대학인 중국치하얼대학에 세종학당을 설립하고, 내년 2월까지 1년 동안 한국어 보급에 나선다.

치하얼은 중국에서 총인구 기준으로 13번째로 큰 도시이자 베이징상성 제2의 도시로, 년장 유역 지방의 정치·경제·문화·교통 중심지다.

동신대는 치하얼대학 세종학당을 통해 중국 현지인들에게 한국어를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특히 최근 한류 열풍을 타고 외국어 또는 제2의 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중국인이 많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운영해 한국문화와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수한 교원을 지원하고, 한국어 교육 전문가를 현지에서 파견해, 세종학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한스앤컴퍼니, 10일 ‘멘토르’ 사업설명회

(주)한스앤컴퍼니(www.hansmentor.com)가 공부전략 ‘멘토르’ 사업설명회를 광주에서 연다.

설명회는 오는 10일 오전 11시부터 12시30분까지 광주시 북구 광주역 입석대실에서 열린다.

‘멘토르’는 독서·논술과 자기 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미국 공교육에서 검증된

LTE(Learning To Learn)를 한국 교육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미리 박사(청와대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이 ‘입학사정관 제도에 있어서의 자기주도학습과 독서’라는 주제로 특강한다. 설명회는 수원, 부산, 대구, 대전 등지를 순회하며 열린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대, 청년직장체험 운영기관 2년 연속 선정

광주대(총장 김혁중)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고용정책지원사업인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해 직업설계능력 향상 및 다양한 경력 축적 등을 유도하는 것으로, 정부가 지난해부터 일선 대학교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대학 재학생들이 기업에서 인턴 연수를 할 경우 학생 1인당 월 40만원의 인건비가 최대 2개월 동안 전공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된다. 광주대는 사업

시행 첫해인 2011년 운영기관으로 선정됐고, 사업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뽑힌 바 있다.

이규훈 호심인재개발원은 “예비취업자들이 직장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극심한 취업난을 뚫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대학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대는 고용노동부가 첫 실시한 2011 대학취업지원역량 인준제 시범사업 평가에서 광주·전남지역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신대학교

2012-1 여자신학원 (여전도사과정) 모집

지원자격 : 세례교인인 자(학력제한 없음)

수업형태 : 2년(4학기) / 주 3일 / 야간제

교육일시 : 2012년 3월 5일 개강 / 한 학기 15주 / 매주 월·화·목요일 19:00 - 21:55

수강료 : ① 등록금 : 700,000원(한 학기당)
② 입학금 : 50,000원

제출서류 : 입학원서(사진 3cm×4cm 2매) 및 담임교역자추천서 1부 ※ 전형료 : 5,000원

혜택 : ① 매학기 신청자에 한하여 교회봉사장학금 지급
② 본교 중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학생증 발급(학생에 준하는 열람 및 대출가능)

여전도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 교양과목과 성경 및 신학과목은 물론 상담학, 심리학 등 당회장을 보필하는 여전도사로서 인격을 연마하는데 목적이 있음.

2012-1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교육일시(총100시간) ▶ 월, 화, 목, 금 오후 6:00~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자**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 교학처 (062)605-1112, 1063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 (매매나 임대)

<건물 구함>

- 일반 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가구주택 (원룸, 투룸, 쓰리룸)
- 창고와 공장건물

<토지 구함>

- 지역 : 광주시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용도지역 : 자연녹지, 용도 : 주차장
- 최고용도 300평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20개 매출4억2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상가건물 매도>

- 매도가 30억 보증금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대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 접, 농지전용완료, 매대가 협의 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m2(725평) 평당95만원
- 공장 창고용도로 적합
- 비어있음 자연녹지 11,463m2(3,468평) 평당 70만원
- 광산구 임동 계획관리지역 28,845m2(8,726평)매도가 21억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황룡면, 장성I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371-1900, 010-2006-0115
삼우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 (법원인가) 임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다가구주택

- 동구 산수동 3층다가구주택 대지152평 건평180평 감정가5억9천만 최저가4억2천만

상가및근린시설

- 남구 월산동 50m대로변(상업지역) 대지330평 2층건물400평 감정가 20억 최저가 11억5천만
- 북구 용두동 일반상업3층건물 대지60평 건평132평 감정가5억7천만 최저가4억

단독주택

- 남구 봉선동 2층단독주택 대지56평 건평70평 감정가1억8천만 최저가1억2천만

근린주택

- 동구 계림동 4층상가주택 대지53평 건평193평 감정가 4억 최저가 3억2천만

토지매매

- 화순군 도곡면 도곡온천방향 4차선도로변 관리지역 농지1500평 매매 평당50만(조정가)
- 담양군 남면 구산리 향원당향병병원부근 대지224평 관리지역 매매 평당50만(조정가)
- 신안군 자은면 교정리 해수욕장부근 관리지역101평 매매 평당20만원

광주 남구 월산동 구.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

대인동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시실분

상가 전문소개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에 전지역 상가중 집포가 할 형성되어 월세가 더 저렴하며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집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시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 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FAX)1223-1772 011-602-2532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번길 10-1